



보도 일시	2023. 3. 17.(금) 20:00 (국제엠바고)	배포 일시	2023. 3. 17.(금) 16:00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최문성 (moonsung@korea.kr) 사무관 김선익 (ksi1206@korea.kr)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부제〉 “A Fragile Recovery”

-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17(금) 프랑스 시간 12:00(한국시간 20:00)에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
  - \* (OECD 경제전망)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주요 20개국(G20) 국가 대상  
(OECD 중간 경제전망)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주요 20개국(G20) 국가만 대상
-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23~'24년에 걸쳐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 될 것으로 전망
  - \* 세계경제 성장률(%): ('21) 5.8 ('22) 3.2 ('23°) 2.6 ('24°) 2.9  
G20 평균 물가상승률(%): ('21) 3.8 ('22) 3.1 ('23°) 5.9 ('24°) 4.5
  - 세계경제 성장률을 '23년 2.6%, '24년 2.9%로 전망하여 '22.11월 전망 대비 각각 +0.4%p, +0.2%p 상향 조정
    - 미국은 통화긴축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로 점차 성장 둔화, 유로존은 에너지가격 안정으로 완만한 회복, 중국은 금년에 반등 전망
    - \* 성장률 전망('23→'24년, %): (미국)1.5 → 0.9 (유로존)0.8 → 1.5 (중국)5.3 → 4.9
    -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경제활동과 기업·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으로 글로벌 상품·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인접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관광 재개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 팬데믹 이후 가계 저축률 완화로 인해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으나, 가파른 금리인상 여파가 은행부문에서 가시화되는 등 더욱 타이트해진 금융여건은 민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영향

- 한편, 주요 20개국(G20) 평균 물가상승률을 '23년 5.9%, '24년 4.5%로 전망하여 '22.11월 전망 대비 각각  $\Delta 0.1\%p$ ,  $\Delta 0.9\%p$  하향
- 글로벌 성장둔화와 에너지·식량 가격 안정세, 주요국 통화긴축 효과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여타 선진국보다 통화긴축을 일찍 시작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에 빠른 진전이 예상되는 반면, 유로존·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 '23년 물가전망(%): (미국)3.7 (영국)6.7 (독일)6.7 (프랑스)5.5 (이탈리아)6.7 (스페인)4.2
- 향후 2년간 거의 모든 주요 20개국(G20)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에도 대다수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23년, '24년 성장률을 각각 1.6%, 2.3%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23년 3.6%, '24년 2.4%로 전망

* 국내기관별 전망	정부('22.12)	한은('23.2)	KDI('23.2)
'23년 성장률(%):	1.6	1.6	1.8
'23년 물가상승률(%):	3.5	3.5	3.5

- '23년 성장률 전망을 '22.11월 전망대비  $\Delta 0.2\%p$  하향조정, '24년 성장률 전망을 '22.11월 전망대비  $+0.4\%p$  상향조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호주와 함께 중국 성장 반등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면서 타이트한 금융여건에 따른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전망
- \* "Korea and Australia will benefit from the expected growth rebound in China, offsetting the impact of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 우리나라의 '23년 물가상승률을 '22.11월 전망대비  $\Delta 0.3\%p$  하향조정했으나, '24년 물가상승률은  $+0.1\%p$  상향조정
- \* '23년 물가상승률 조정폭(%p, '22.11→'23.3월): (韓) $\Delta 0.3$  (G20 평균) $\Delta 0.1$

④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 여건에 대한 개선된 전망은 여전히 "취약한(Fragile)" 기반에 놓여 있으며, 상·하방 리스크는 최근 균형된 모습이나 아직 하방리스크가 다소 우세다고 평가

-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신흥국 식량안보 약화, 공급망 분절 심화 등이 성장·물가 악화요인으로 작용 가능

- 통화긴축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 속도와 기간에도 불확실성 잠재
-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 가중, 금융기관 불안(SVB 파산 등) 및 가파른 주택가격 하락 등도 위험요인
  - SVB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시장금리와 채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높은 만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지적
    - \* "In addition, sharp changes in market interest rates and in the current market value of bond portfolios could also further expose duration risks in the business models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highlighted by the failure of the US Silicon Valley Bank in March."
-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신흥국 부채와 재정적자 확대 위험 등도 존재
- 유럽은 에너지 공급부족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 가능성 등도 하방위험으로 제시

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통화긴축, 취약계층에 타게팅된 재정정책, 구조적 개혁 노력 재개,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권고

- 물가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면서, 미국과 유로존 등 대다수 국가에 추가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높은 에너지·식량 가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정책 활용 권고
  - 점진적으로 보편 지원을 축소하고 선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수요자극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
- 생산성 향상과 공급제약 완화를 위해 기업 역동성\* 제고, 국경 간 교역 장벽 완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등 구조적 개혁 노력 재개를 권고

\*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 및 기존 한계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정도

- 에너지·식량위기 극복, 저소득 국가 채무부담 지원,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노력 등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3.17일 20:00) 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OECD 「'23.3월 중간경제전망」 성장을 전망 (G20국가)

(%, %p)	'22년	'23년 전망			'24년 전망		
전망시점		'22.11월	'23.3월	조정폭	'22.11월	'23.3월	조정폭
전세계	3.2	2.2	2.6	+0.4	2.7	2.9	+0.2
G20	3.1	2.2	2.6	+0.4	2.7	2.9	+0.2
유로존	3.5	0.5	0.8	+0.3	1.4	1.5	+0.1
호주	3.6	1.9	1.8	△0.1	1.6	1.5	△0.1
캐나다	3.4	1.0	1.1	+0.1	1.3	1.4	+0.1
독일	1.9	△0.3	0.3	+0.6	1.5	1.7	+0.2
프랑스	2.6	0.6	0.7	+0.1	1.2	1.3	+0.1
이태리	3.8	0.2	0.6	+0.4	1.0	1.0	0.0
스페인	5.5	1.3	1.7	+0.4	1.7	1.7	0.0
일본	1.0	1.8	1.4	△0.4	0.9	1.1	+0.2
한국	2.6	1.8	1.6	△0.2	1.9	2.3	+0.4
멕시코	3.0	1.6	1.8	+0.2	2.1	2.1	0.0
튀르키예	5.6	3.0	2.8	△0.2	3.4	3.8	+0.4
영국	4.0	△0.4	△0.2	+0.2	0.2	0.9	+0.7
미국	2.1	0.5	1.5	+1.0	1.0	0.9	△0.1
아르헨티나	5.6	0.5	0.1	△0.4	1.8	1.8	0.0
브라질	3.0	1.2	1.0	△0.2	1.4	1.1	△0.3
중국	3.0	4.6	5.3	+0.7	4.1	4.9	0.8
인도	6.9	5.7	5.9	+0.2	6.9	7.1	0.2
인도네시아	5.3	4.7	4.7	0.0	5.1	5.1	0.0
러시아	△2.1	△5.6	△2.5	+3.1	△0.2	△0.5	△0.3
사우디	8.7	5.0	2.6	△2.4	3.5	3.7	0.2
남아공	2.0	1.1	0.6	△0.5	1.6	0.9	△0.7

## 참고2

## OECD 「'23.3월 중간경제전망」 소비자물가 전망 (G20국가)

(%, %p)	'22년	'23년 전망			'24년 전망		
전망시점		'22.11월	'23.3월	조정폭	'22.11월	'23.3월	조정폭
G20	8.1	6.0	5.9	△0.1	5.4	4.5	△0.9
유로존	8.4	6.8	6.2	△0.6	3.4	3.0	△0.4
호주	6.6	4.5	5.0	+0.5	2.5	2.8	+0.3
캐나다	6.8	4.1	3.6	△0.5	2.4	2.3	△0.1
독일	8.7	8.0	6.7	△1.3	3.3	3.1	△0.2
프랑스	5.9	5.7	5.5	△0.2	2.7	2.5	△0.2
이태리	8.7	6.5	6.7	+0.2	3.0	2.5	△0.5
스페인	8.3	4.8	4.2	△0.6	4.8	4.0	△0.8
일본	2.5	2.0	2.5	+0.5	1.7	1.8	+0.1
한국	5.1	3.9	3.6	△0.3	2.3	2.4	+0.1
멕시코	7.9	5.7	5.9	+0.2	3.3	3.4	+0.1
튀르키예	72.3	44.6	44.6	0.0	42.1	41.4	△0.7
영국	9.1	6.6	6.7	+0.1	3.3	2.8	△0.5
미국	6.3	3.5	3.7	+0.2	2.6	2.5	△0.1
아르헨티나	95.0	83.0	85.0	+2.0	60.0	75.0	+15.0
브라질	9.3	4.2	5.4	+1.2	4.5	4.3	△0.2
중국	1.9	2.2	2.2	0.0	2.0	2.0	0.0
인도	6.6	5.4	5.8	+0.4	4.4	4.2	△0.2
인도네시아	4.2	4.1	4.1	0.0	2.5	3.5	+1.0
러시아	14.0	6.7	6.4	△0.3	6.1	5.3	△0.8
사우디	2.5	3.2	2.3	△0.9	2.3	2.3	0.0
남아공	6.9	5.9	5.8	△0.1	4.9	4.8	△0.1